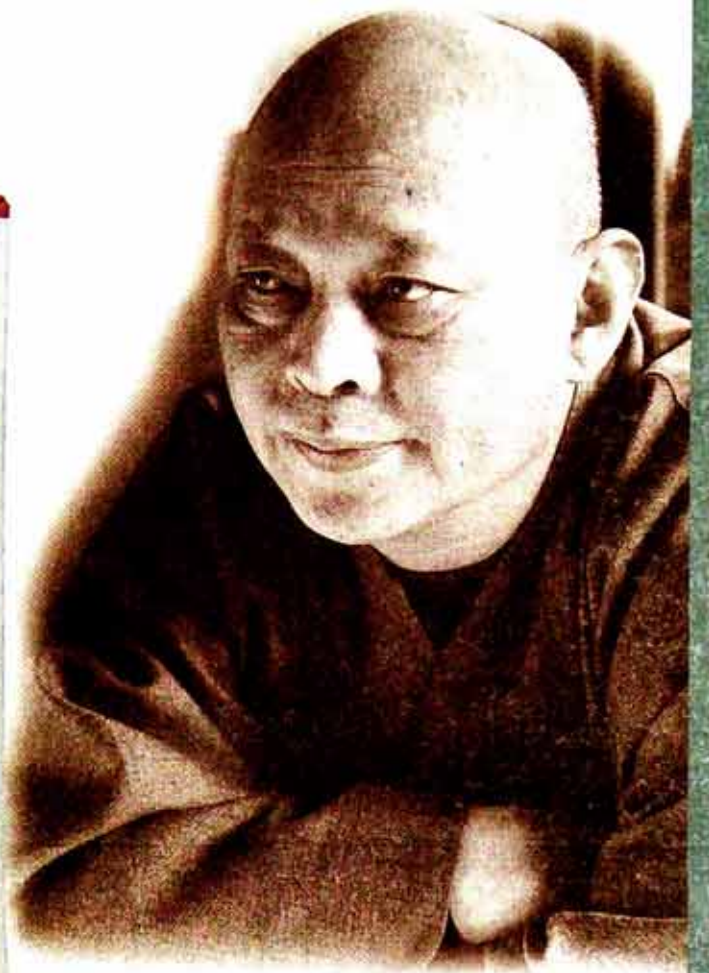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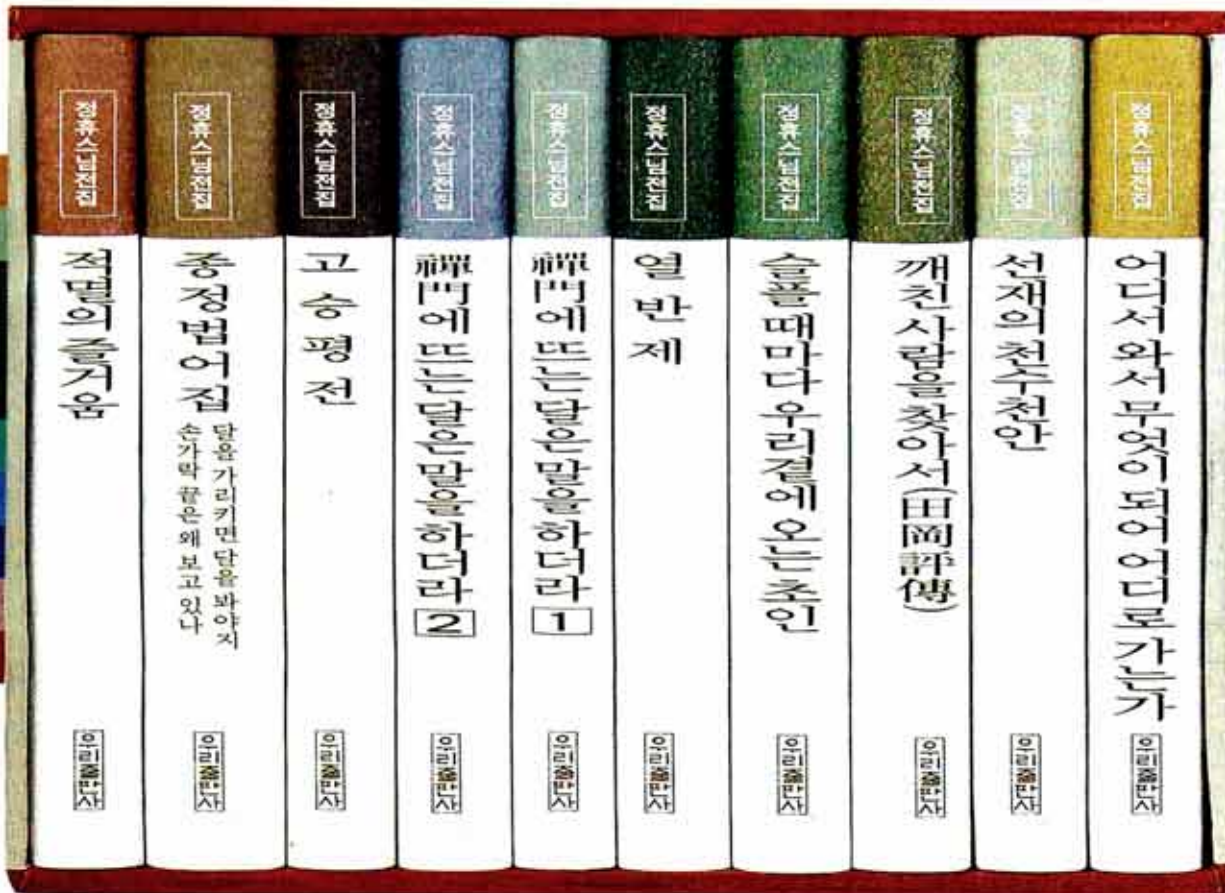


정휴스님전집(전10권) 간행

정휴스님 40년 수행과 문학 집대성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겠다.
아, 그리운 사람 그는 일체의 속박을 떨쳐버린 인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오랫동안 깨달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설악산이 제 몸을 풀어
눈을 녹이고 속살을 데워서
잎이 피고 꽃을 피우면
나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네 스스로 적멸이 되는
연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 속에
맑은 영혼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림을
갓지 못했다.

1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신국문 294권/10,000원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 마음은 모든 생사의 근원이며 일체 악의 모체(母體)다. 열반의 즐거움도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선(禪) 사인 관찰력과 영혼을 일깨우는 필력으로 불교문학을 주도해 온 정휴스님의 전집 제1권 수상집으로 전적인 〈후과 바림으로 가는 불빛〉과 여러 잡지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았다. 스님의 자화상 이라고도 고백하고 있다.

3 깨친 사람을 찾아서(田岡評傳)

신국문 316권/10,000원
한공·한암·용성스님 등 당대의 대선지식들에게 ‘관지성도’의 화두로 깨침을 인가받고 또한 그들의 범거랑을 통해 선공 진작의 한 획을 그었던 전강대신사의 경전이다. 냉엄하면서도 헌신이 자비스런 마음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었던 전강스님은 중국 선사들의 선풍을 모조리 배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말과 행을 스님 특유의 선공으로 진작시켜 간직했고 이를 통해 후학들을 제정했다. 이러한 그의 선과 수행세계를 정휴스님이 한치 변용없이 재구성하여 전강스님의 법어를 들려주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5 열반제

신국문 316권/10,000원
한 수행인의 제가와 출가의 고통을 구도적 측면에서 의나라하게 파헤친 존재 탐구를 즐거리로, 중생과 부처의 갈등 그리고 존재의 어둠을 극복해 보려는 데서 출발한 이야기. 광다를 살이던 무엇이든 또 어떠한가 하는가, 진정한 도구란 무엇이든 그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 〈열반제〉는 이 땅의 종교가 당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무시하면서 보다 올바른 인간의 길, 신앙의 길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때 참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적 명상 속에서 참된 인간 말전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8 고승평전

신국문 286권/10,000원
‘불입문자(不立文字)’의 세계인 선(禪)의 세계를 치열하게 실험하며 살다간 원효스님으로부터 향곡스님에 이르기까지 열아홉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밀도있게 파헤쳤다. 불입문자의 세계는 생명이 일면 경수복 본질과 떨어지는 법. 그 세계를 실험하며 살다간 선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고승평전은 불입문자의 세계로 향하는 강경대리라고나 할까, 존재의 문제에, 선(禪)의 세계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이제 그 정경대리로 인발 발을 들여놓기를 권해 본다.

10 적멸의 즐거움

신국문 240권/10,000원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없어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열반하다가 입적하여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육신이 붙어 타 육으로 들어가 근원이 된다. 육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붙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격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데 안으로 적멸을 기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2 선재의 천수천안

신국문 300권/10,000원
선(禪)은 단 점(隻中)을 통해 존재의 실상(實相)을 깨닫는 행위다. 명상과 사유(思惟)가 없는 사람일수록 살코 보면 정신이 깨달아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음식은 육신을 살찌우게 하지만, 순수한 집중의 사유는 정신을 살찌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형성케 한다. 사유가 깊을수록 인간은 밝은 영성의 빛을 지닐 수 있다. 길지는 맑은 정신과 깨달음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종교적 시각으로 담고 있다.

4 (소설 경어)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신국문 340권/10,000원
광명한 일상을 거부하고 야성적 광기로 살다간 근세 한국불교의 거목 경허선사.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경허선사의 무애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김경후에 의해 최초로 파헤쳐진 경허의 오도적 비밀은 무엇인가. 지옥과 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거리없이 살았던 경허의 삶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자 경이를 안겨준다. 경허는 단순한 기이어나 농세의 달인도 아니었다. 그는 몇 세대를 앞당겨 산 슬픈 초인이었고 근대 선종의 가장 뛰어난 선사였고 중흥조였다.

6 7 선문에 뜨는 달은 말을 하더라 1, 2

신국문 316권/10,000원
자기 초극과 해탈을 위해 먹고 자는 일을 포기하거나 자기 몸 속에서 살점이 빠져나가는 청진한 선사들의 이야기. 선사들의 출가 동기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친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감동과 함께 경이를 불러 일으킨다. 선사들의 출가적 동기는 대부분 인간적 고뇌에서 출발하고 있고 고뇌의 밑바닥에는 삶의 절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삶의 고뇌와 절망은 구도를 통해 극복되었고 고뇌의 어둠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선사들은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깨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비우는 일에 치열한 열정을 쏟는다.

9 중정범어집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다

신국문 437권/10,000원
거례의 지도자 역대 총정들의 삶과 가르침! 조사의 법어는 창조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말이 아니고 마음의 선택을 여는 원초적 언어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의 어록 앞에서 어떨 때는 영혼이 상차(上 차)고 자성(自性)이 봉기되는 충격을 만난다. 왜냐하면 실존적 자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개된 역대 총정스님의 법어는 한국 선종의 독특한 오도(悟道)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오도의 지평을 확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가 1-38호
전화/(02)313-5047/5056 팩스/(02)393-9696
E-mail: woribook@chollian.net

출판기념회

때: 2000년 11월 22일 오후 5시
장소: 한국일보 (13층) 송현 클럽